

즉시 보도용

2024년 5월 15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평등권 수정헌법(ERA) 개정 촉구 청원 서명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LA 시장은 오늘 미 전역 대도시 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평등을 위한 법적 조치,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 경제적 공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강조하는 평등권 수정헌법(ERA) 국민 청원에 서명, 이를 지지했다. 기자 회견에는 여성 이슈에 집중해 여러 법안을 발의한 캐롤린 말로니 전 의원을 포함, 하이드 펄스틴 소토 LA시검사장 등 관련 리더들이 참석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평등권 수정헌법이 필요하다.”며 “여성으로서의 권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수정헌법을 지지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제 친구이자 동료 전 말로니 하원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이 서명에 동참해주신 돌로레스와 LA시 검사장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전국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드 펄스틴 소토 시검사장은 “여러분의 지도력과 청원서를 조명하는 로스앤젤레스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해준 배스 시장에게 감사한다. 17살 투표 등록도 하기 전에 저의 첫 정치적 행동은 지역사회에 평등권 수정안을 비준하는 것을 지지하고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전화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었다.”며 “의회가 조치를 취하고 헌법 수정안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캐롤린 말로니 전 하원의원은 “ERA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배스 시장과 의회에서 함께 한 다년간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법 노력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매우 긴밀히 협력했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국민들에게 기회와 권리의 평등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ERA 청원 운동에 동참해준 최초의 시장님들 중 한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은 LA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자 두번째 흑인 시장이다. [Sign4ERA](#) 청원운동은 수정헌법 28조로 의회가 ERA를 비준하도록 하기 위한 풀뿌리 캠페인이며, ERA 연합, 시민 인권 단체, 종교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단체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청원 운동은 뉴욕시에 있는 루즈벨트 하우스 공공 정책 연구소의 헌터 칼리지 학생들과 ERA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후 약 10만 명이 이 청원운동에 참여했다. Sign4ERA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셜 미디어의 존재를 부각시켜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지지자들을 참여시키려는 계획에 따라 100만 명의 서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